자선 파크골프대회 '新 포교 방편' 됐다

9월 27일, 구미 동락파크골프장
단체 우승은 의성 고운사 신도회
진우 스님 "생활체육 포교의 장"
정원주 회장 "교구 동호회 결성"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제1회 전국 불자 자선 파크골프대회 단체우승은 제16교구 고운사 신도회에 돌아갔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가 불자 단합과 자선 모금을 위해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했다. 400여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40여 명의 스님들도 경기에 참가해 사부대중이 생활체육을 통해 유대감을 공고히 했다.

중앙신도회는 9월27일 구미 동락파크골프장에서 '제1회 총무원장배 전국 불자 자선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포교부장 정무 스님 등 종단 교역직 스님들을 비롯해 도리사 회주 웅산 법등 대종사,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 등 각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이 참석했다. 정원주 중앙신도회장과 임원을 비롯해 제8교구본사 직지사를 중심으로 전국 교구 신도회와 포교사단, 대한불교청년회, 체육인불자회 등에서 96개 단체팀, 367명이 참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 등도 동참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불자들은 파크골프를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며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했다.

본격적인 대회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공을 치며 자연과 호흡하고 함께 걸으며 웃는 과정은 곧 수행의 길과도 닮아 있다"면서 "한 타, 한 걸음마다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불자들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선의 정신', 그리고 명상과 다르지 않다"고 격려했다.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은 동사섭을 강조하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화합"이라며 "화합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사섭, 즉 행동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새로운 포교의 장을 기대하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전국 불자들이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길 염원했다.

대회는 대한파크골프협회 규정에 따라 남녀 2인씩 4인 1팀을 구성해 샷건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체우승은 제16교구 고운사 신도회에 돌아갔다. 직할교구신도회와 제15교구 통도사 신도회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해 트로피와 상금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개인 남녀 1~5위 수상과 행운권 추첨 등이 진행됐다.

특히 참가자들은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자비나눔을 실천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1인 참가비 5만원 가운데 3만원이 경기가 열린 구미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 중앙신도회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교구신도회마다 파크골프 동호회를 결성하고 불자들의 결속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정원주 중앙신도회장은 "전국 24개 교구신도회에 모두 파크골프 동호회가 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앞으로 파크골프를 통해 보다 신도회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불자들의 결속력과 소속감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암각화 속 불교적 지혜 탐구해 내면 성찰"

'봉은 문화 선명상–가을에'
일감 스님, 9월 27일 4번째 강연
선명상 실참 · 봉은사 자비경 낭독


봉은사 선명상연구소장 일감 스님이 9월 27일 봉은사 명상길 중앙쉼터에서 '봉은 문화 선명상–가을에' 4번째 강연을 진행하는 모습.

가을 숲길에서 고대 인류의 기록 유산인 암각화를 매개로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님을 탐구하는 선명상 강좌가 열렸다. 선조들이 돌에 새긴 염원을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내면을 성찰하는 자리였다.

봉은사 선명상연구소장이자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일감 스님이 9월 27일 서울 봉은사 명상길 중앙쉼터에서 '봉은 문화 선명상-가을에' 4번째 강연을 진행했다. 스님은 '무정법 유차별'을 주제로 '나는 누구인가, 인류는 어떤 생각을 해왔는가'라는 근원적 물음을 던지며 고대 암각화가 전하는 삶의 의미를 풀어냈다.

이날 일감 스님은 지난 10여 년간 국내를 비롯해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몽골, 카자흐스탄 등을 직접 돌며 수집한 암각화 탁본 작품을 소개했다. 공개된 작품은 기원전 6000~7000년 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스님은 "고대인들이 남긴 암각화는 공통적으로 '먹고 사는' 삶을 넘어 더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다"며 "인간과 자연, 동물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부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서원이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암각화에 드러나는 불교 정신이 스스로 마음을 맑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연 후 참석자들은 암각화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사유의 시간을 가졌다. 일감 스님의 지도 아래 호흡에 집중해 마음을 가라앉히는 선명상 실참도 이뤄졌다. 스님은 "자연과 내가 하나임을 느끼고 '나와 너가 둘이 아님'을 체험하면서 부처님을 닮아가겠다는 서원을 새겨 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참석대중은 〈자비경〉을 함께 낭독하며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아픔을 나누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고귀한 삶을 이어 가길 염원했다.

강연에 동참한 최종섭 불자는 "고대 암각화로 선조들의 마음을 느끼며 나 자신의 마음을 비춰 볼 수 있어 뜻깊었다"며 "인간과 자연이 하나임을 생각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가을에' 강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 김선희 불자도 "선명상 호흡법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어 좋았다. "암각화를 보며 고대인들이 남긴 절실한 염원을 떠올리니 지금 내 삶의 방향도 다시 돌아보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내영 기자

서울 11개 대학 불교동아리, 연합법회



9월 25일, 서울 만덕사서 봉행
지도법사 · 학생 130여 명 동참

서울지역 11개 대학교 불교동아리가 9월 25일 서울 만덕사에 모여 연합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연세대와 서강대 불교동아리 및 만덕사 주최로 봉행된 이날 연합법회에는 연세대, 서강대, 한국외국어대, 성신여대, 홍익대, 이화여대, 동덕여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서울여자간호대 불교동아리 임원 및 회원 130여 명이 동참했다.

만덕사 주지 정탄 스님, 연세대 및 서강대 지도법사 석도 스님, 성신여자대학교 지도법사 시현 스님, 조계사 포교국장 정오 스님 및 서울 수미정사와 만덕사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수미정사 주지이며 동국대 명예교수 해주 스님이 법문했다.

해주 스님은 '불교와 마음수행'을 주제로 '불성을 믿고 인과에 밝게 살자'라는 가르침을 대학생들에게 전했다. 이어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은 이미 부처님께서 문제로 삼아 수행을 통해 깨달으셨으니,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에서 해답을 찾아 나아가길 바란다"면서 대학생 청년 불자들을 응원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스님들이 직접 준비해 온 소장품 및 선물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며 덕담을 나눴다.

꽃차를 준비한 성신여대 지도법사 시현 스님은 "대학생 법우들의 꽃과 같은 날들을 응원한다"는 애정 어린 말을 전했다.

다과를 비롯해 다양한 선물을 준비한 조계사 포교국장 정오 스님은 "불교동아리를 통해 부처님을 만난 인연도, 이렇게 함께 법회를 하는 것도 모두 우리 학생들의 복"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사회를 맡은 손민필 연세대 불교동아리 회장은 "불교동아리 활동 및 법회를 통해 배운 부처님 가르침을 주변 학우들과 함께 나누는 대학생불자가 되겠다"고 인사했다.

임은호 기자



외국인 스님들, 사찰음식 배우며 한국 문화체험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진성 스님) 국제팀은 10월 1일 서울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2025년 외국인 스님 한국 사찰음식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조계종 초청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스님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교육은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 불교국가 출신 외국인 스님 25명이 참석했다. 10년 전 한국에 온 미얀마 출신 우드라 스님은 "한국에 오랜 기간 거주했지만 사찰음식을 만들어 본 것은 처음"이라며 "한국 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임은호 기자

이목당 서운대종사 30주기 기념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와 서운문도회에서는
종단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세 번 역임하시고 원로의원, 종무지도위원장, 감찰원장 등의 소임을 맡아 통합종단 출범 후 대한불교조계종의 기틀을 만드셨던 이목당(二木堂) 서운대종사의 30주기 기일을 맞아 대종사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서운대종사의 업적을 기리고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세미나, 살아생전의 모습과 신문기사, 옛 자료를 전시하는 사진전 〈차가운 달 빈 산의 진리〉, 추모다례재와 함께 추모문집 〈서운대종사문집〉을 봉헌하는 의식과 더불어 강화인천지역의 신도교육의 요람이 될 〈전등사역사문화교육관〉 준공법회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추모기념사업에서는 스님께서 종단 출범기 종무행정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는 〈처무규정〉의 원본을 50여 년 만에 발굴하는 한편, 봉은사 토지 매각에 반대하며 소신공양을 표명했던 〈봉은사 임야 및 토지매각 처분에 대한 역사적 증언〉과 당시 신문기사 등 다수의 관련 자료를 발굴해서 문집에 싣고,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효봉, 동산, 금오, 청담 스님 등과 함께 위법망구의 자세로 종단의 기틀을 만드신 스님의 원력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에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목당 서운대종사 30주기 추모 다례재 및 추모문집 봉헌
일시 : 2025년 11월 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 무설전

■ 전등사역사문화교육관 준공법회
일시 : 2025년 11월 8일 오전 11시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역사문화교육관 앞

■ 이목당 서운대종사 30주기 기념 세미나
일시 : 2025년 11월 8일 오후 14시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역사문화교육관 대강당

■ 이목당 서운대종사 30주기 기념 사진전 〈차가운 달, 빈 산의 진리〉
일시 : 2025년 10월 4일~12월 30일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 대조루 (10월 4일부터)
전등사역사문화교육관 (11월 8일부터)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제10회 남한산성 수륙무차대법회 | 산사음악회
의승군 문화제

일시 : 2025년 10월 25일 (토) 08:50 ~ 18:00
장소 : 남한산성 장경사 경내

1부 개막의식 08:50~10:30
타종식 | 헌다례 | 신중작법 | 대령/시련의식

법요식 10:30~11:30
개회 | 삼귀의 | 반야심경 봉독 | 주지스님 봉행사 | 내빈 소개 | 헌화
내빈 축사 | 추모가 | 사홍서원 | 내외빈 퇴장 | 공지사항

점심공양 11:30~13:00

2부 남한산성 의승군 추모 수륙무차대법회 13:00~16:00
상단의식 | 중단의식 | 설법의식 | 하단/봉송/회향의식

3부 장경사 가을 산사음악회 16:00~18:00

산사음악회 출연진
가수 김범룡
첼리스트 김규식
기타리스트 박윤우
가수 염수연
사회자 여현아
밴드 박희진과 드래곤즈
중창 인소노앙상블
난타 안다미로예술단

주최 | 세계속의 경기도 광주시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남한산성 장경사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광주문화재단 Gwangju Cultural Foundation